

# 영화에 나타난 전통 복식의 현대적 표현과 미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영화 <조선남녀상열지사-스캔들>과 <음란서생>을 중심으로-

이 언 영\* · 이 인 성\*\*

수원여자대학교 패션코디네이션 겸임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Study on the Modern Expression and Aesthetic Symbolism in Films

-Focusing on the film <Scandal> and <Eumranseosaeng>-

Un-Young Lee\* · Inseong Lee\*\*

Adjunct Professor, Dept. of Fashion Coordination, Su-won Women's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7. 13 투고)

### ABSTRACT

All costumes used for dramatic effect delivers the character's individual data such as sex, age, social position, job, personality, and sense of values in the scene and leads the progress of drama as a media that describes psychological condition and image of the drama etc. symbolically. Therefore,, it has a meaning of finding out the importance of film costume, recognizing the traditional culture through the expression and creativity limited to the age in expression, finding out the unique Korean beauty and succeeding it to the future generation. The film <Scandal> is the first costume drama in Korea, which is remake work of <Les Liaisons dangereuses, 1782> in the age of the King Jeongjo in Joseon Dynasty. And <Eumranseosaeng> is comic costume drama that the story goes as a man of the noblest birth debuts as a filthy novel writer. Both films have remarkable grace, elegance and magnificence as having Joseon Dynasty on the background, and treats irregularities and dissipation hidden in the noble society that looks elegance on the surface. There are three aesthetic symbolism in films, naturalism neat beauty, traditionality expressed.

Key words: film costume(영화의상), scandal(스캔들), Eumranseosaeng(음란서생), aesthetic symbolism(미적 상징성)

## I. 서론

현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부분에서 영상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매체로써 영화는 시각적·청각적 요소를 모두 갖춘 표현 매체로서 영화는 모든 것이 시각화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이고 세분적인 영역까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진다. 영화는 독자적인 예술양식이지만 다변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며 시각적인 대중매체이며 강한 현실감을 느끼게 해 주는 종합적인 예술양식이다. 특히 의상은 영화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등장인물의 의상과 신체 분장을 위해 배우에게 착용되는 헤어,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을 포함하며 '옷'이라는 단순한 기능 외에도 하나의 표현적인 구실을 하는 분야로 영화스토리에서 중요한 독립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영화에 표현되는 의복은 단순히 배우들의 역할 도구로써의 기능 뿐 아니라 영화에 맞는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극중 인물의 성격, 개성, 신분, 사회계층은 물론 영화의 이미지·주제·형식까지 표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의상 작업은 정밀한 계획과 많은 인원이 요구되는데 아트디렉터의 기획아래 미술팀, 의상팀, 소품팀, 분장팀이 함께 전체 색상과 이미지 등이 서로 조화가 잘 되도록 협의하여 연출하게 된다. 특히 시대극일 경우에는 고증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함으로 복식의 고증을 뒷받침해주는 연구팀과 전통제작팀이 포함되어진다.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김현정(2005)의 '영화<위험한 관계>와 <스캔들>의 의상 비교분석 연구'와 한필남(2005)의 '영화<스캔들>로 본 한국적 헤어의 미적 연구'가 있는데, '영화<위험한 관계>와 <스캔들>의 의상 비교분석 연구' 김현정(2005)의 연구는 동시대의 영화를 통해 의상을 분석하여 인물에 따른 특징적 의상 표현의 언급과 동·서양의 의상 비교에 치중했으며, '영화<스캔들>로 본 한국적 헤어의 미적 연구' 한필남(2005)의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직접 영화의 미용팀 시술자로 참여하여 그 사실성이 부각되어지긴 하지만 머리 양식에만 국한하여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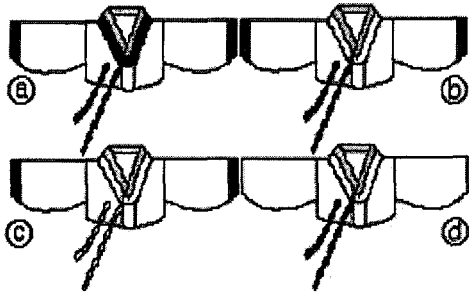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후기라는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패션을 통해 미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영화로 뽑히는 영화<남녀상열지사-스캔들>과 <음란서생> 두 시대극의 비교·분석을 통해 메이크업과 액세서리를 포함한 토탈 패션 개념으로의 현대적인 의복 표현법과 미적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는 영화 의상 및 헤어, 메이크업, 액세서리의 중요성을 알아봄에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미의식의 고취와 디자인의 시대적 표현성과 창조성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의 인식과 한국인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후세에 계승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남녀상열지사-스캔들>과 <음란서생>의 영상 자료를 통한 시각적 고찰과 선행 연구, 인터넷 홍보자료 등을 통한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의상의 형태, 소재, 색상과 헤어·메이크업, 액세서리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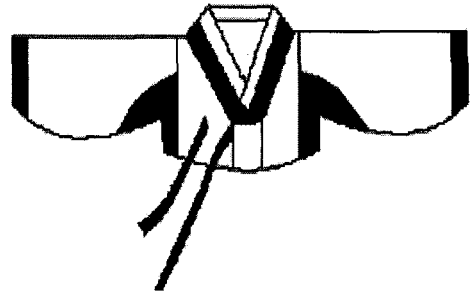
## II. 조선 후기의 여자복식 특징

조선 시대 정치 및 사회구조의 특징은 조선을 건국한 신진 세력들이 불교를 배격하고 유교를 신봉하였으므로 유교가 조선 전 시대에 걸쳐 일관된 지도 이념이었다.

유교의 통치 양식은 덕치주의(德治主義) 또는 예치주의(禮治主義)의 사고로써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 또는 '천인관계설(天人關係說)'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공자에 의한 인(人)을 그 사상의 중심으로 함으로써 유교의 명분론적 사고의 기초가 되어 예사상(禮思想)을 강조하며 이것은 정치제도에 영향을 주어 고려 사회보다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이고, 유교적 봉건적 지배체제로서 모든 관리를 문반인 동반과 무반인 서반으로 나눈 양반 제도의 폐복식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상·하, 존·비, 귀·하의 이원적 구조를 갖게 되었고 이는 신분제에 따라 강압성을 띄게 되어 복식금지(服飾禁制)로



<그림 1> 반회장 저고리  
(출처: 한국복식문화사)



<그림 2> 삼회장 저고리  
(출처: 한국복식문화사)

나타나게 되었다.<sup>1)</sup>

### 1. 형태

여자복식의 기본 형태는 저고리와 치마이며 가장 큰 변화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치마가 매우 풍성해진 것이다. 이는 당시 복식에 있어 유행의 선두에 서 있던 기녀들의 복장을 따라하는데서 심화된 현상이다. 이러한 저고리의 간소화와 치마의 장대화는 상경하중(上經下重)의 실루엣을 만들어 저고리와 치마와의 살을 가리기 위해 가리개용 허리띠가 나오게 되었고, 소매에 있어서도 긴 화장과 수구에 넓은 끝동이 좁아지기 시작하였다. 저고리는 반회장 저고리<그림 1>에서 점차 삼회장 저고리<그림 2>로 변하여 소매의 배래는 직선적 형태로 좁아졌으며, 깃은 넓었던 직령 깃이 좁아지면서 둥글어졌고 특히 고름은 가늘고 짧아졌다<sup>2)</sup>.

또한 하의의 풍성함을 위하여 단속곳을 입고 그 밑에 속곳을 입고 그 밑에는 자주 빨아 입을 수 있는 다리속곳을 입었으며 이밖에도 상류층에서는 의출 시에는 단속곳위에 비단 겹으로 된 바지나 무지기 치마 등으로 더 부풀려 저고리의 간소화와 치마의 장대화로 표현되는 상경하중의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그 외에 배자, 마고자, 두루마기, 쓰개치마, 너울 등이 있고 예복으로는 적의, 원삼<그림 3>, 활옷<그림 4>, 당의<그림 5>가 있는데 적의는 빈궁의 법복

이며, 왕복의 상복인 원삼은 조선후기까지 녹원삼을 착용하였으나 광무 원년부터 황후는 황색, 왕비는 홍색, 비빈은 자색, 옹주는 초록색을 착용하였고, 민간에서는 족두리에 녹색 원삼을 혼례복으로 착용하였다. 활옷은 공주나 옹주 또는 상류층의 혼례복으로 화려한 꽃과 나비, 새 문양의 자수가 특징적이며, 당의는 소례복으로 궁에서는 평상시에도 흔히 입는 옷이었다.

### 2. 소재

여자복식의 주된 소재는 무명, 양단, 명주, 숙고사, 옥사, 모시, 삼베 등이 가장 많았고 문양에 있어서 원삼에는 모란꽃, 수(壽), 복(福) 자의 금박 문양이 나타났으며, 활옷은 모란꽃, 봉황, 난초, 바위, 파도 문양을 자수로 장식하였다. 또한 대란치마, 스란치마에는 용, 봉황, 모란, 석류 문양 등이 많이 표현되었다.<sup>3)</sup>

### 3. 색상

치마 색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졌는데 어릴 때부터 출산 전까지는 다홍치마를 주로 입었고, 중년이 되면 남색 치마를 노년이 되면 옥색·회색계통의 치마를 입었으나 과부는 평생 흰 것으로 일생을 마쳐야했다.<sup>4)</sup> 또한 색상은 유교의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기본으로 만물의 활동 요소를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로 나누었다. 이것을



〈그림 3〉 원삼  
(출처: www.naver.com 권오창 그림)



〈그림 4〉 활옷  
(출처: www.naver.com 권오창 그림)



〈그림 5〉 당의  
(출처: 포토CD출판정보원 배순자 고증 복원)

오행(五行)이라 하며 음양오행설은 오행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인생의 길흉화복이 지배된다는 세계관이고 오행은 음양의 상생과 상극의 조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오방색(五方色)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본 빨강(赤), 노랑(黃), 파랑(靑), 흰(白), 검정(黑)색을 사용하여 상하 배색은 적-청, 백-청, 청-청, 청-황으로, 겉과 안은 적-청, 백-청, 백-적의 배색을 표현하였다.

#### 4. 헤어

조선시대 헤어는 궁중에서 왕비들의 예식용으로 〈그림 6〉의 큰머리, 혼례 때나 기녀들이 사용하였던 어여머리〈그림 7〉, 부녀자의 머리 형태로 가체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엷은머리〈그림 8〉, 의식이나 궁중 출입 시에 예복에 갖추던 머리 형태인 조짐머리〈그림 9〉, 첩지를 엷은 첩지머리〈그림 10〉, 두발 뒤에 쪽을 지어 작은 비녀를 꽂은 쪽진머리

〈그림 11〉, 미혼녀의 쪽진 머리 형태인 남자쌍계, 궁중의 어린 소녀의 새양머리〈그림 12〉, 가장 기본적인 미혼녀의 머리 모양인 땅아서 변발을 늘이고 끝에 댕기를 들인 땅은 머리 등 다양한 머리 형태가 있었다.<sup>6)</sup>

#### 5. 메이크업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점잖은 용모를 추구하여 화장이 옅어지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경향으로 변모하였고, 특히 사대부가 여인들에게는 진한 화장을 금기 시켰으며, 의복 또한 단정함이 우선이었다. 조선시대 부녀자들은 화장을 거의하지 않았지만 손님을 맞이할 때나 나들이 할 때는 반드시 옅은 화장을 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화장 문화는 여염집 부녀자들의 비분대화장<sup>7)</sup>과 기녀와 같은 특수직 여성을 중심으로 한 〈그림 13〉의 분대화장<sup>8)</sup>으로 이원화되었다.<sup>9)</sup> 하지만 조선시대 빙허각 임씨의

〈표 1〉 음양오행설에 입각한 색상표

	木	火	土	金	水
五正色(陽)					
五間色(陰)					



〈그림 13〉분대화장  
(출처: 화장문화사)

〈규합총서〉 중 ‘십미요(十美要)’에는 눈 썸 그리는 방법과 입술연지 그리는 법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이 기록은 기녀 대상이 아닌 사대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책이었다. 또한 백분, 화장 용품, 화장용구를 취급하는 곳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양반 계층의 여인들도 분을 바르고 눈썸을 그리고 연지를 바르는 등 화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단지 은은하고 얇은 화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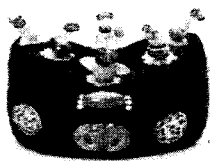
## 6. 액세서리

조선시대에는 호화롭고 다양한 장신구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현대의 모자와 같은 화관, 족두리, 아얌, 풍차, 남바위, 쓰개 등의 관두와 비녀, 첩지, 떨잠, 뒤꽂이 등의 머리 장식품, 그 외 삼작노리개와 꽃이나 나비 등의 문양이 수놓아진 신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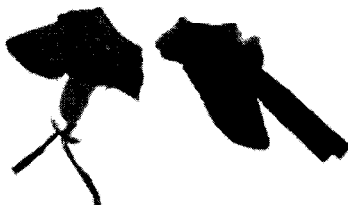
족두리〈그림 14〉는 의식이나 혼례와 같은 경사시에 사용하였으며 보다 화려하게 꾸밀 때는 화관을 사용하였다. 부녀자들의 겨울 나들이용 방한모인 아얌, 풍차〈그림 15〉, 여인들이 나들이 할 때 예절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였던 장옷과 쓰개치마〈그림 16〉등이 있다.

머리 장식품은 가채와 함께 떨잠이나 뒤꽂이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후에 쪽진 머리가 일반화됨에 따라 비녀의 사용도 대중화되었다.

떨잠〈그림 17〉과 뒤꽂이〈그림 18〉은 상류계급의 큰 머리, 어여머리의 중심과 양편에 꽂았던 장식품



〈그림 14〉족두리  
(출처: 복식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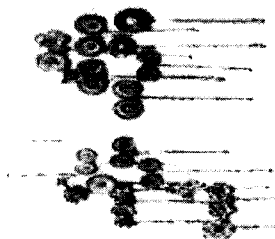
〈그림 15〉풍차  
(출처: 복식문화사)



〈그림 16〉쓰개치마  
(출처: 복식문화사)



〈그림 17〉떨잠  
(출처: 미용문화사)



〈그림 18〉뒤꽂이  
(출처: 미용문화사)



〈그림 19〉비녀  
(출처: 미용문화사)

이었고, 상류층의 비녀(그림 19)는 은 금, 은, 주옥으로 된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미혼녀나 부녀자의 없은머리, 쪽진 머리에 사용하였던 장식품으로 땡기는 쪽땡기, 제비부리땡기, 도투락땡기 등이 있다.

### Ⅲ. 영화 <남녀상열지사-스캔들>과 <음란서생>의 비교 분석

영화 <남녀상열지사-스캔들>과 <음란서생>은 조선시대 후기라는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주인공의 의상, 헤어·메이크업, 액세서리 등의 패션을 통해 영화에 표현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영화이다. 두 영화는 조선 후기의 사대부를 등장인물로 설정하여 감춰진 향락과 부정을 가볍고 코믹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문화적 코드 요소를 적절하게 가미하고 있어 사극이라는 고정된 장르에서 벗어나 시·공간을 초월한 현대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 1. 영화 <남녀상열지사-스캔들>

##### 1) 영화 <남녀상열지사-스캔들> 작품 배경

영화 <남녀상열지사-스캔들>은 1782년 프랑스 쇼데르 드 라클로(Chodelos de Laclos)의 소설인 <위험한 관계>를 유교적 질서 틈새로 천주학이나 실학이 융성하기 시작하는 18세기 조선 후기 정조시대를 배경으로 한 한국최초의 코스튬 드라마로 조선시대의 우아함과 세련됨, 화려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sup>11)</sup> 걸으로는 고상한 척하는 귀족사회의 그 이면에 감춰진 부정과 향락 문화를 다뤘으며 궁중이 아닌 민가로써 그 시대의 부유층 고급문화를 즐기는 사대부를 등장인물로 설정하여 문물의 교류와 다양한 스타일을 다루는 시대로 표현하였다.

이 영화는 이재용 감독과 이병우 음악 감독이 7회 상하이 국제영화제 감독상과 음악 감독상을 수상하였고 베스트 시청각상 수상한 바 있으며,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이재용 감독은 아시아 영화진흥기구(벤티)상 수상감독을 수상하였다. 영화 <남녀상열

지사-스캔들> 영화의 의복 전체 작업은 정구호씨가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총 기획을 하였으며, 미술팀-박상훈, 의상팀-김희주, 헤어팀-한필남, 분장팀-김선진, 의상제작-구혜자 전수희관, 한나래 전통의상 '담연'이 담당하였다<sup>12)</sup>.

##### 2) 영화 <남녀상열지사-스캔들> 작품 줄거리

등장인물은 조씨 부인, 조원, 숙부인, 좌의정 부인, 이소옥, 권인호 등이며, 영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청명하였던 조씨 부인은 겉으로는 사대부 현모양처의 삶을 살지만 내적으로는 부도덕한 관례를 즐기면 자존심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조씨 부인은 남편의 소실로 들어올 어린 소옥을 차지하라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촌동생인 조원에게 제시하지만 조원은 9년간 수절하며 열녀문까지 하사받은 정절녀 숙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씨 부인은 조원이 성공하면 유혹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약속하고 조원은 내기를 수락한다. 조원은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천주교도로 살아가는 숙부인을 유혹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숙부인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조씨 부인의 농간에 넘어가 숙부인과 헤어지고 그 후 숙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조씨 부인은 자존심을 상하게 한 조원에게 복수하고자 권인호를 이용해 끝내 조원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괴로워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숙부인을 절망하여 자결하고, 조씨 부인은 춘화로 인한 소문으로 인해 홀로 외롭게 중국으로 도망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 2. 영화 <음란서생>

##### 1) 영화 <음란서생>의 작품 배경

영화 <음란서생>은 '법도와 도리'라는 이름으로 담혀있던 조선시대에 음란 소설 창작에 빠지게 된 최고의 명문가 사대부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에서 뜻밖의 소설을 발견한 명문가의 사대부가 겪는 '컬처 쇼크(Culture

Shock)’를 기발하고 유쾌하게 전개해나가는 영화이다. 양반과 평민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넘어 음란소설의 집필과 배급을 함께 모의하는 음란 콤비의 표현이나 왕의 후궁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대부와의 위험한 사랑을 감행하는 여 주인공의 다양하고 현대적인 인간 군상을 비롯하여 ‘폐인’, ‘땃글’ 등 현대의 문화적 코드들과 절묘하게 교차하는 요소들을 첨가하여 예기치 못한 공감과 웃음을 주는 등 영화에 사극이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시대와 배경을 초월하는 현대적 감각을 부여하였다.

이 영화는 ‘정사’, ‘반칙’, ‘스캔들’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김대우의 감독과 빛과 어둠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것으로 호평 받는 김지용 촬영감독이 함께하여 빛과 어둠으로 음란한 분위기와 주인공들이 음란 소설을 통해 겪게 되는 내면의 급격한 변화를 강렬한 콘트라스트로 표현하는 등 사극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다.<sup>13)</sup> 또한 전체 의복은 조근현이 프로덕션 디자인은 하였으며, 의상은 대중상 의상상을 수상하였던 정경희가 맡았다. 미술 부분에 전체 제작비의 30%에 투여하여 총 2000여 평의 큰 규모와 철저한 고증을 통한 세트를 제작하였고, 남자 주인공의 ‘흑곡비사’가 은밀하게 제작·배급되는 결정적 장소로 사용된 유기전을 위해 2003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80년 전통의 국내 최고 유기 업체인 ‘거창 유기 공방’에서 특별 제작 협찬하였다. 의상도 원하는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직접 다양한 종류의 원단을 모두 손 염색하였으며, 영화 속의 그림들은 10인의 서화가와 2인의 서예가가 투입되고 박제동 화백의 감수를 통해 완성하는 등 철저한 계획과 준비과정으로 이루어진 미술 표현에 의해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sup>14)</sup>

## 2) 영화 <음란서생>의 작품 줄거리

등장인물은 정빈, 윤씨, 광헌, 황가, 조내시 등이며, 영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윤서의 동생이 반대파의 모함에 초죽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가문은 최고의 문장가인 윤서에게 가문의 명예를 위해 반대파를 모함하는 역

상소를 올리라고 강요한다, 이와 동시에 반대파는 임금에게 주청을 올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 정빈의 족자 위조사건 수사를 맡게끔 하고 이 처리과정에서 음란소설의 집필이 시작됨과 동시에 왕의 후궁 정빈과의 사이에 내연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윤서는 추월색이라는 필명으로 음란소설을 발표하고, 그의 소설은 장안에 화제가 되지만 인봉기사라는 필명을 지닌 기존의 1인자에 비해 윤서의 소설은 늘 2인자가 되어 1인자가 되고픈 욕심에 가문의 숙적 금부도사 광헌에게 소설 속 삽화를 그려줄 것을 부탁한다. 광헌 역시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윤서와 나란히 음란소설 창작에 빠져들게 되며, 윤서의 문체에 광헌의 그림이 만나 양반의 점잖음을 잊은 완벽한 음란 호흡으로 최고의 작품인 ‘흑곡비사’를 탄생시키며, 이 양반 콤비의 작품은 장안 최고의 화제작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후에 정빈은 ‘흑곡비사’의 음란소설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고, 사랑에 속았다는 생각과 한편으로 부끄러움과 치욕에 못 이겨 왕의 힘을 빌려 윤서를 의금부에 잡아넣게 하지만 잔인하게 고문하는 모습을 보고 윤서를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윤서와 정빈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 왕은 정빈의 죄를 덮어두고 윤서는 이마에 음란이라는 문신을 새긴 채 멀리 외딴섬에 귀향을 보낸다. 시간이 흘러 광헌과 유기전 주인은 외딴섬에 홀로 있는 윤서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윤서는 또 다른 음란한 소설의 즐거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다음 작품에 대한 구상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감된다.

## IV. 여자 주인공 의복의 현대적 표현

### 1. 여자 의복의 특징

여자 등장인물 중에 사대부 계급의 여자복식을 알아보기 위해 조씨 부인과 숙부인의 의복을 연구하였다.

#### 1) 조씨 부인

조씨 부인은 30대 중반의 유관서의 정실부인으로



<그림 20> DVD캡처



<그림 21> DVD캡처



<그림 22> DVD캡처



<그림 23> DVD캡처



<그림 24> DVD캡처



<그림 25> DVD캡처



<그림 26> DVD캡처

서 미모와 권세를 지닌 여인이다. 외적으로는 사대부의 현숙한 정실부인이나 실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존심이 높으며, 사회적 통념을 따르지 않고 남자를 지배하려는 강한 성격을 지녔다. 시문에 능하고 병서를 즐겨 읽으며 패션 감각이 뛰어난 여인이다.

조씨 부인은 의복을 살펴보면 형태는 짧고 타이트한 저고리, 열두폭 폭 넓은 치마, 좁고 짧은 고름으로 조선시대 전통복식에서 보여졌던 저고리는 간소화하고 치마는 장대화한 상경하중의 형태를 극대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 외에 배자, 쓰개치마가 나타났으며, 색상은 빨간색-남색, 노란색-자주색, 보라색-남색, 황토색-갈색의 배색과 남색 깃, 와인색 깃으로 표현되었고, 소재는 양단, 명주, 무명 등이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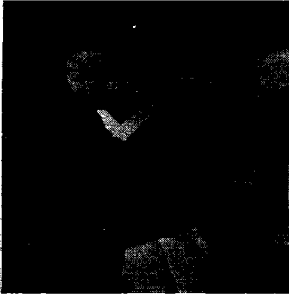
헤어는 엷은머리에 뒤꽂이, 비녀, 땔잠, 부채, 노리개 등의 액세서리로 연출하였으며, 얇은 눈썹, 또렷한 눈매, 빨강 입술, 불연지로 표현한 메이크업이 보여진다.

<그림 20>은 조씨 부인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의 제례복으로 원삼을 변형한 형태이다.

원삼에 조선시대 왕이나 공주의 혼례복으로 사용되었던 활옷의 화려한 자수를 첨가시켜 조씨 부인의 화려함, 부와 권세를 상징하였고, 전통적인 원삼의 색상인 녹색이 아닌 흰색을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림 21>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조신한 사대부 여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색상이나 형태에 있어 점잖고 검소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22>는 조씨 부인이 입은 기본적인 의상의 형태로 타이트하고 짧은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의 형태이다. 짧은 저고리 밑으로 허리 가리개가 보이며, 열두 폭 넓은 치마는 움직일 때마다 화려한 동세를 연출하고 있다.

<그림 23>과 <그림 24>, <그림 25>는 회보라색-자주색/ 남색-빨간색/ 남색-주황색-보라색으로 음양오행설을 기본으로 한 전통적인 색상에서 벗어나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부가하여 과감한 색상의 대비





〈그림 27〉 DVD캡처



〈그림 28〉 DVD캡처



〈그림 29〉 DVD캡처



〈그림 30〉 DVD캡처



〈그림 31〉 DVD캡처



〈그림 32〉 DVD캡처

로 조씨 부인의 숨겨져 있는 욕망과 권력, 허영 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26〉은 옅은 색상의 의상이지만 치마와 고름을 선명하게 배색하여 여성스러우나 또렷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조씨 부인의 헤어는 대부분 〈그림 24〉의 땡아 올린 좌우상하 볼륨이 풍부한 형태의 엷은머리이다. 나비와 꽃 모양의 은과 옥류로 구성된 화려한 뒤꽂이, 옥판 위에 칠보나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꾸민 떨잠, 옥 반지, 비녀 등으로 화려함을 연출하고 색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의상 색상에 따라 비비드 톤의 동일색상의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색상에 따른 코디네이션을 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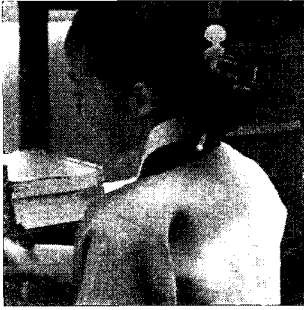
메이크업에 있어서는 〈그림 24〉와 같이 가늘고 짙은 아치형 눈썹, 선명한 눈매, 붉은 볼연지, 또렷한 빨간 입술의 기너들 화장과 유사한 형태로 진하고 화려하게 표현하여 조씨 부인의 관능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 2) 숙부인

숙부인은 20대 후반으로 정숙함과 도덕심을 삶의 신조로 하는 인물로 사회적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의외로 서학이나 열하일기 등에 관심을 보이는 개인 여성이다.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지만 열녀문을 하사받은 가문의 영광이라는 의무로 제한되어진 규범이 많은 여자이다.

형태는 조씨 부인에 비해 조금 길고 여유있는 저고리와 열 폭 치마로 저고리와 치마의 마고자와 장옷 등이 나타났다. 색상에 있어서 조선시대에 과부는 언제나 흰색의 옷만을 착용하여야 했지만 영화의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파스텔 톤의 분홍색-회색, 연두색-자주색, 갈색-회색, 회색-남색, 남색-검정색의 다소 옅은 색의 배색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다소 밋밋할 수 있는 색상에 남색 깃, 자주색 깃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었으며, 소재는 명주, 무명 사용되었다.

헤어는 뒤꽂이, 비녀를 이용한 쪽 머리이며, 노리개를 의상에 장식을 하였다. 메이크업은 자연스런



〈그림 33〉 DVD캡처



〈그림 34〉 DVD캡처



〈그림 35〉 DVD캡처

눈썹, 은은한 눈매와 입술로 정숙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의 연회색, 남색, 검정, 갈색, 연녹색 등의 색상을 사용하여 넉넉한 품과 길이의 저고리와 얼 폭의 치마로 검소하며 단아하고 정숙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조선시대의 미망인은 흰색만 허용되었지만 영화에서 사용된 다양한 색상은 숙부인의 이미지나 심리변화에 상응되는 현대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랑이 싹트고 나서 점차 붉은 튼이 도는 〈그림 29〉의 분홍색 저고리와 〈그림 30〉의 빨간색 머플러가 보여지게 되고, 조원에게 상처 받은 후의 의상은 다시 색상이 〈그림 31〉과 같이 어두워지게 된다. 목숨을 끊는 장면의 누빔 마고자(그림 32)의 흰색은 조원을 향한 일편단심을, 빨간색 머플러는 조원과의 사랑을 흰색과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색상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헤어는 앞가르마를 탄 쪽머리 형태(그림 33)로 비녀와 옥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형태의 뒤꽂이로 표현하여 정갈하고 정숙하되 고급스럽게 연출하였다. 단아한 머리 형태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절개를 상징하는 백동과 옥비녀, 그 외 옥으로 만든 뒤꽂이로 장식하였다. 메이크업은 〈그림 34〉과 같이 자연스런 회갈색의 눈썹과 안한듯한 옅은 색상의 아이섀도우, 자연스런 입술 등으로 표현하여 단아하고 정숙하되 곧은 성품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액세서리로 어두운 색상의 노리개와 은장도가 보이는데 조원과의 사랑이 싹튼 이후 은장도는 없어지게 됨으로써 심리변화에 따른 의복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림 35〉의 옥색 쌍가락지는 양반 계급의 표현이며 원래는 과부에게는 흰색 반지만 허용되어, 반지 중 하나는 미망인이 끼고 나머지 하나는 무덤에 넣어 외가락지만을 착용하여야하나 영화에서는 의상 색상에 따른 현대적 표현으로 연출하였다.

### 3) 정빈

〈음란서생〉의 주인공인 정빈은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아름다운 고풍적인 여인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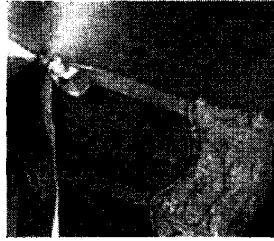
얌전한 듯 당돌하고, 연약한 듯 강인하며, 청순함 가운데 요염한 기운을 뿜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매력의 소유자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문제를 불러오는 매력을 지닌 인물이다. 숨 막히는 왕가의 법도에 순응하는 듯 하지만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는 대담하고 위험한 일도 불사하는 강인한 여인으로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는 시대를 앞서간 당당한 여인이다.

정빈의 의복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조선시대의 한복 형태인 짧은 길이의 저고리와 부풀어진 치마가 보여지며, 전통복식의 특징인 겹쳐있는 형태의 착장이 나타난다.

또한 음란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옷을 이용하여 관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실제 고증에 의하면 상류층의 여자들은 속마지 5개, 속치마 2개의 총 7개의 하의를 입었는데 〈음란서생〉에서는 고증과는 달리 과도한 볼륨감을 피하고 관능성을 부가시켜 개량한 속옷으로 대체하여 착용시켰다.<sup>15)</sup>



〈그림 36〉 DVD캡처



〈그림 37〉 DVD캡처



〈그림 38〉 DVD캡처



〈그림 39〉 DVD캡처



〈그림 40〉 DVD캡처



〈그림 41〉 DVD캡처



〈그림 42〉 DVD캡처

개량 속옷은 걸 속옷에 비치는 소재를 이용하거나 〈그림 36〉, 끈 여밈 장식〈그림 37〉을 하여 관능성과, 꽃수 장식을 하여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그림 38〉의 속옷 하의는 실제 남부지방에서 많이 착용된 주름을 잘라내 만든 살창고쟁이를 변형시킨 것으로 바지 형태의 속옷을 치마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는 더욱더 음란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배우의 원활한 착의와 극의 빠른 흐름을 돕고 있다.<sup>16)</sup>

영화 〈음란서생〉에서는 청순함 가운데 요염한 이미지를 함께 지닌 정빈을 표현하기 위해 검은색, 진한 빨간색, 분홍색 등의 과감한 색상과 금박, 자수 장식으로 화려함과 권력, 허영, 불륜을 나타내고, 저채도의 회보라색이나 연두색, 자주색을 무지로 사용하여 조신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39〉는 윤서를 만나고 난 후의 정빈 한복인데 고려시대 공민왕 어머니 의상에서 가져온 컨셉으로<sup>17)</sup> 조선시대의 의상이라는 시대적 한계에서 벗어난 디자이너의 창의성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정빈의 겹쳐 입은 분홍색 한복은 윤서와 새롭게 시작된 사랑의 설레임과 그로인한 심리적인 행복과 밝

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분홍색은 젊음, 애정을 떠올리게 하는 동경의 색으로 그녀의 신중하지 못한 성격과 부유한 상류의 생활의 정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sup>18)</sup> 〈그림 40〉은 진한 빨간색의 동일 배색으로 저고리와 치마를 사용하되 짧은 길이의 반회장 저고리 밑으로 흰색 가슴가리개와 노리개가 강한 배색감을 주어 관능성, 화려함과 함께 영화의 음란함 및 정빈의 심리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으며, 〈그림 41〉은 일반적으로 금기시되었던 검은색을 사용한 당의와 풍성한 치마의 형태인데 단순한 검은색이 아닌 비치는 소재로써 색상의 대비와 문양, 질감의 겹침 효과를 나타내는 무아레(Moire)현상을 이용하였다. 이는 인물의 움직임과 동작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을 전달해줌으로써 영화의 에로틱함을 부각시켜주고 있으며, 가슴과 소매에 금박을 장식하여 직분과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다. 또는 왕에게 윤서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에서 정빈의 의상은 당의 전체에 금박장식을 하였으나 상·하의와 고름까지의 전체적인 색상 배색이 저채도로 이루어져 어둡고 답답한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그림 43〉 DVD캡처



〈그림 44〉 DVD캡처



〈그림 45〉 DVD캡처



〈그림 46〉 DVD캡처



〈그림 47〉 DVD캡처



〈그림 48〉 DVD캡처



〈그림 49〉 DVD캡처

정빈의 헤어스타일은 화려한 의상을 더욱 빛내는 풍성하고 탐스러운 얽은머리 장식과 저채도의 의상에 어울리는 단정한 쪽진 머리로 구분할 수 있다.

큰 가체에 떨잠과 뒤꽂이를 사용하여 머리 수식을 화려하게 하였고〈그림 43〉, 〈그림 44〉, 〈그림 45〉는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화려한 비녀와 뒤꽂이로 부유함과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그림 46〉은 어두운 정빈의 심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장식이 없는 은색의 비녀 외에 아무런 머리 장식품 없이 간소하게 쪽진 머리로 표현하였다.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또렷한 눈매와 입술로 정빈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44〉처럼 살짝 작긴 눈썹과 긴 아이라인 표현으로 또렷한 눈매를 나타냈으며 중간톤의 붉은 입술을 크고 또렷하게 표현하여 관능성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시간변화에 따라 정빈의 심리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강하게 표현하지 않은 아이라인으로 슬픈 눈매를, 관능성을 배제한 옅은 색상의 입술〈그림 46〉로 표현하였다.

또한 〈음란서생〉에서 윤서가 쓴 베일은〈그림 47〉

조선시대에 존귀함을 나타내는 검은색의 노방위에 기계수를 놓아 화려함을 강조한 현대식 너울의 표현으로 유교 통치 이념 속에 내외법이 존재했던 조선시대의 너울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림 48〉은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너울대신 간편하게 만든 빨간색의 치마형 쓰개치마를 착용한 것인데 얼굴을 가리는 듯 하지만 빨간색에서 보여지는 욕망과 음란함이 완전한 노출보다 강하게 표현되어졌다. 또한 〈그림 48〉, 〈그림 49〉의 금색 쌍가락지와 빨간색 옥가락지를 양손에 끼어 화려함과 쓰개치마의 빨간색 이미지와 가슴과 소매에 장식한 금박의 금색 이미지를 부가시켰으며, 파란색으로 그래픽레이션된 노리개를 착용하여 어두운 의상 색상에 포인트를 주었다.

## V. 여자 주인공 의복의 미적 상징성

IV장에서 영화 〈남녀상열지사-스캔들〉과 〈음란서생〉에서 나타난 여자 의복의 현대적 표현을 분석해본 결과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의 역할과 심리 변화

〈표 2〉 주인공 의복의 현대적 표현 분석표

		주인공 의복의 현대적 표현
의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삼을 변형한 제례복과 활옷의 자수 디테일 (조씨부인)</li> <li>• 관능성을 부가하기 위한 탑 형태의 개량 속옷 (정빈)</li> </ul>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흰색 원삼 표현 (조씨부인)</li> <li>• 미적 효과를 극대화시킨 비비드한 색상과 대조 배색 사용 (조씨부인, 정빈)</li> <li>• 미망인을 상징색인 흰색에서 벗어난 유채색 배색 사용 (숙부인)</li> </ul>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걸옷이 비치는 트랜스페어런트 소재의 속옷과 망사 레이스 환복 (정빈)</li> <li>• 재질감을 통한 겹침효과 이용 (정빈)</li> </ul>
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우상하의 큰 볼륨을 이용한 가채 장식 (조씨부인, 정빈)</li> </ul>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녀의 분대화장과 같은 아치눈썹, 짙은 아이라인, 불연지, 빨간 입술 표현 (조씨부인, 정빈)</li> </ul>
액세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뒤꽂이, 떨잠, 반지 등의 장신구의 색상을 의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연출 (조씨부인, 정빈)</li> <li>• 미망인의 외가락지에서 의상 색상에 맞춘 쌍가락지 착용 (숙부인)</li> </ul>

에 따른 의복의 특성을 디자인적 요소인 형태, 색상, 소재에 따라 전통성, 심미성, 자연성의 미적 상징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영화〈남녀상열지사-스캔들〉의 숙부인의 의복에서는 조선시대의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으로 한 형태와 한국적인 색상, 전통 소재 사용, 〈스캔들〉에서의 겹쳐 입는 정빈의 의복 형태에서 전통성이 나타나고 있다. 영화〈남녀상열지사-스캔들〉의 조씨 부인과 〈음란서생〉의 정빈 의복에서 전통 복식의 재현보다는 현대적 감각을 살린 강한 배색감의 색상 사용과 장식성이 강한 헤어, 메이크업으로 심미성이 나타났으며, 3명의 여자 주인공 모두의 의복에서는 자연의 색상과 조화되는 의복의 색상, 자연에서 얻은 모티브에서 보여지는 자연성이 표출되어지고 있다.

### 1. 전통성

두 영화〈남녀상열지사-스캔들〉과 〈음란서생〉의 주인공인 조씨 부인과 숙부인, 정빈은 모두 조선시대의 복식 형태를 기본으로 한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고 있으며, 정빈의 의상에서 나타나는 겹쳐 입는 형태도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에 근거한 인체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은폐적인 관념으로부터 만들어진 의복 착용 습관으로써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숙부인의 쓰개치마의 형태도 드러내지 않는 소박함과 부끄러움을 상징하고 있다. 색상에 있어서도 파스텔 계열의 저고리와 치마 배색으로

한국적인 순수미를 나타내며 조원을 향한 숙부인의 결백하고 순결한 마음을 전통적인 색상인 흰색으로 하여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을 표현하였다. 또한 단아한 이미지의 숙부인 의상 소재로 사용된 명주의 얇은 재질감은 깨끗함, 가벼움, 순수함을 지니며 〈음란서생〉에서 윤서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정빈의 안한듯한 메이크업과 정갈하게 쪽진 머리에서도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미와 전통성이 나타난다. 또한 화려한 금박 장식이나 꽃문양 수장식, 노리개, 떨잠, 뒤꽂이, 비녀 등의 머리 장식품들은 조선시대 고유의 장식품으로써 전통성을 표현하였다.

### 2. 심미성

〈남녀상열지사-스캔들〉조씨 부인과 〈음란서생〉의 일부 정빈 의상에서 보여지는 미적 상징성으로 넓은 허리띠를 중심으로 팍 조여진 저고리와 더욱 풍성하고 장대해진 치마는 서로 반비례 되어진 형태의 구조미와 거대한 엷은머리가 부풀어 오른 치마와 조화되어 유연하고 부드러운 곡선미로 심미성을 표현하였다. 소재에 있어서도 양단의 광택감으로 보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성격을 내포한 관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색상은 권력과 허영, 자유분방한 색상이자 관습에서 벗어나 불륜의 색상으로 상징되는 보라색과 빨간색을 사용하였으며, 빨간색과 남색 등의 대조 배색과 길게 표현한 아이라인, 빨간색의

요염한 입술 표현 등으로 연출한 메이크업은 조씨 부인과 정빈의 관능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조씨 부인 의상에서 원삼의 일정 부분에 활옷의 화려한 꽃 수 장식을 차용하여 자수하거나 정빈의 빨간색 한복에 수놓은 흰색 고름 등은 주목성을 주고 있으며, 조씨 부인과 정빈의 가체를 사용한 엷은 머리에 화려하게 장식한 땀잡이나 뒤틀이의 색상은 비비드 톤의 동일색상을 이용한 조화로 화려함을 나타냈다. 화려한 색상의 반지, 귀걸이의 귀금속 부착, 조선시대 여인들이 사용한 쓰개의 한 종류인 너울을 변형한 검정색 노방 베일 등 조씨 부인과 정빈의 의복에서는 전통 복식이 디자이너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되어 심미성을 표출하였다.

### 3. 자연성

두 영화의 여자 등장인물인 <남녀상열지사-스캔들> 조씨 부인과 숙부인, <음란서생>의 정빈 의상에 사용되는 무명, 옥사, 명주, 양단 등의 소재는 부드럽고 단아함을 주는 자연재의 감성과 정밀하거나 짜임이 같은 생성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예복의 자수나 금박 문양이나 양단에 짜여진 문양, 뒤틀이나 비녀와 같은 액세서리의 모양 등에 목련 꽃, 나비, 석류, 봉황, 수(壽), 복(福)의 자연적인 문양을 사용하여 자연성을 표현하였다. <남녀상열지사-스캔들> 숙부인의 의상과 액세서리 색상에서 나타나는 연두색, 옥색, 흰색 등은 부드러운 하늘이나 산천(山川)과 같은 자연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고, <음란서생>에서 '흑곡비사'의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빈의 변화된 의상 색상인 저채도의 짙은 녹색, 갈색, 회색 등은 땅의 색상과 좋은 조화미를 갖으며 자연성을 표출하였다.

## V.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남녀상열지사-스캔들>와 <음란서생>에 나타난 의복은 시대적 배경 안의 고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며, 영화의 의미와 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 인물과 이미지에 따른 디자이너의 창작성을 부과하여 현대적인 미의 표현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영화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다소 멀게 느껴졌던 전통을 현대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후세에게 계승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영화 <남녀상열지사-스캔들>와 <음란서생>에 나타난 여자 의복의 현대적 표현을 분석해 본 결과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의 역할과 심리 변화에 따른 의복의 특성을 디자인적 요소인 형태, 색상, 소재에 따라 전통성, 심미성, 자연성의 미적 상징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씨 부인과 숙부인, 정빈의 의상에서 조선시대 저고리와 치마의 기본적인 복식 형태를 차용하고 있으며, 정빈의 겹쳐 입는 형태나 숙부인의 쓰개치마도 전통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흰색이나 전통 소재인 명주 사용, 정빈과 숙부인의 안한듯한 메이크업과 정갈하게 쪽진 머리에서도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미와 전통성이 나타난다.

심미성은 조씨 부인과 정빈 의상에서 보여지는 미적 상징성으로 상경하중의 실루엣 형태, 양단의 광택감, 조선시대의 전통 복식 색상과는 달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보라색과 빨간색 사용이나 대조배색 등을 이용하여 화려함, 관능성 등으로 표현되었다.

자연성은 부드럽고 단아함을 주는 무명, 옥사, 명주, 양단 등의 자연 소재 사용이나 자수나 금박 장식 문양, 뒤틀이, 비녀와 같은 액세서리의 모양을 자연적 모티브를 사용하여 나타났다. 색상에 있어서도 하늘이나 산천, 땅과 같은 자연의 색상과 조화미를 이루는 숙부인의 의상의 연두색, 옥색, 흰색이나 정빈 의상의 저채도 갈색, 짙은 녹색, 회색 등으로 자연성을 표출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로 분석되어진 영화에 나타난 의복에 관한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 방법이 시각적 자료를 통해 분석되어짐에 따라 객관성에 있어서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복식 전문가 집단에게 인터뷰나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

하며 민속화나 풍속화 등의 그림과의 비교 연구와 같은 의미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1) '천인합일사상' 또는 '천인관계설': 우주는 절대적 질서가 있어 이것을 천도라하고, 인간이나 사회도 절대적 질서에 따라야 하며, 인간의 행위나 사회의 질서가 우주의 절대적 질서와 합치될 때, 그 인간이나 사회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2) 조효선 (1988). 복식문화사. 서울: 일지사, p. 84.
- 3) 이현정 (1998). 한국복식 2000년. 서울: 이현정한복연구소, p. 100.
- 4) 유희경. 상계서, p. 281.
- 5) 이해숙 (1998). 조선조 배색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p. 49.
- 6) 박형심 외 (2004).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사, pp. 60-62.
- 7) 분대화장은 부녀자들의 얼은 화장을 일컫는다.
- 8) 분대화장은 기생과 같은 직업여성들이 하는 흰 피부, 진한 눈썹, 붉은 볼연지와 입술의 짙은 화장을 말한다.
- 9) 박형심 외 (2004). 앞의 책, p. 74.
- 10) 전완기 (1999). 한국화장문화사. 서울: 열화당, p. 28.
- 11) 김현정·양취경 (2005). 영화 <위험한 관계 Dangerous Liaison>와 <스캔들-조선남녀 상열지사>의 의상 비교 분석 연구. 복식, 55(4), p.1.
- 12) <http://www.eumranseosaeng.co.kr>. 2007년 5월 18일 검색.
- 13) <http://www.naver.com> 2007년 3월 8일 검색.
- 14) <http://naverbrog.com> 2007년 3월 8일 검색.
- 15) <http://www.daum.net/openknowledge>. 2007년 3월 8일 검색.
- 16) 이미희 (2007). 영화의상에 나타난 미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9.
- 17) <http://www.eumranseosaeng.co.kr>. 2007년 5월 18일 검색.
- 18) 김희정 (1997). 영화의상에 표현된 색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98.
- 19) 강윤숙 (1982).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직물과 문양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이해숙 (1998). 조선시대 배색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금기숙 (1988).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김당휘 (1994).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배색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한필남 (2005). 영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로 본 한국적 헤어의 미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박희정 (2002). 조선후기 기녀 복식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조명자 (2003). 한국 화장 문화 사적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박형심 (2004).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사.
- 27) 조효선 (1988). 복식문화사. 서울: 일지사.
- 28) 유희경 (1997).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29) 전완기 (1999). 한국화장문화사. 서울: 열화당.
- 30) 이현정 (1988). 한국복식 2000년. 서울: 이현정한복연구소.
- 31) <http://www.naver.com/open100>
- 32) <http://www.daum.net/openknowledge>
- 33) <http://www.eumranseosang.co.kr>
- 34) <http://www.scandle.co.kr>